

#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의 매개효과-

## The Influence of Empathy Ability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Tendency and Helping Behavior-

김은주\*, 정은정\*\*

서울가톨릭상담센터\*,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Eun-Ju Kim(maria7110@naver.com)\*, Eun-Jung Chung(914janet@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지역과 K지역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연구변인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행복감, 감사성향, 도움행동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변인이었다. 셋째,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도움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변인이었다. 넷째,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은 이중 매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대학생 | 공감능력 | 행복감 | 감사성향 | 도움행동 | 매개모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mpathy ability, gratitude tendency, helping behavior,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and whether gratitude tendency and help behaviors are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happines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559 college students in S and K city.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data such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ata.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study, it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AMOS. Finally, we analyzed the effect of empathy on happiness by using the bootstrap procedu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tendency and help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each was positiv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happiness, the gratitude tendency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or. Third, helping behavior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empathy and happines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happiness, it did not do dual mediate to the gratitude tendency and help behavio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 keyword : | College Students | Empathy Ability | Happiness | Gratitude Tendency | Helping Behavior | Dual Mediation |

접수일자 : 2017년 11월 09일

수정일자 : 2017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09일

교신저자 : 정은정, e-mail : 914janet@hanmail.net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이다. 대학생은 자아실현 및 인격의 성숙과 같은 기본적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점 관리,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1].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8%, 2014년 10.0%, 2015년 10.2%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생들이 과거보다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현대리서치와 클라임에 의해 조사된 대학생 가치 조사에서 대학생의 행복감은 2009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해오던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 75.2점에서 2014년 72.4점으로 2.8점이 하락하여 앞서 살펴본 파와 같이 대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바로 행복감과 상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행복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측면들의 합을 의미하며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3].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라고 달라이 라마가 말한 것처럼 삶의 의미와 가치의 중심에 행복을 두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다[4]. 그러므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개인 삶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소들 중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ligman[5]은 행복감에 대한 유사개념으로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 중 낙관성, 희망, 공감능력, 영성 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중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또는 그 사람의 경험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 또는 내적 경험을 파악하여 함께 느끼고 인지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6].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대인관계 형성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7].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중심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8][9]. 공감능력은 인지적 측면에서 내적 과정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역할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리로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10], 본 연구에서도 이 두 정의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수용 받는 경험을 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적응을 통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으며[8], 소영호[11]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근 박진성[7]의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여흠 [12]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지만,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공감능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과정에서 중간적 역할을 하는 매개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성향을 높여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13]. 감사성향은 공감능력과 함께 긍정심리학이 추구하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긍정변인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하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14]. 감사성향이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 상태를 말하며, 감사성향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특성으로 긍정적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보인다[15]. 감사성향의 특성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삶 그 자체에 대한 연대감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하고 강화시킨다[16]. 이는 감사성향의 긍정적 정서 특성으로 인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7]. 이에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요인은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성향을 높여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18]. 즉, 감사성향은 공감능력과 함께 긍정심리학이 추구하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긍정변인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19].

한편, 감사성향과 더불어 공감능력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도덕적 정서인 감사성향과 함께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인 도움행동이다. 도움행동은 감사성향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강점 중 하나이다[18]. 도움행동은 타인과의 관계 및 자기발전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원천이 될 수 있고[19], 공격적 행동이나 문제 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갖는다[20]. 이 밖에도 공감능력은 도움행동을 이끌어 대인관계에서 수용 받는 경험을 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적응을 통해 개인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4]. 이를 종합해 볼 때 도움행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감사성향과 도움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生の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알아봄으로써 행복감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이 올라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대학生の 행복에 대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대학생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대하

고자 하는 상담 전문가에게 교육과 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매개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공감능력과 행복감간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매개 효과를 나타 낼 것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지역과 K지역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일부 표본대상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는 4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공감능력, 감사성향과 도움행동, 행복감과 관련된 자기보고식 질문이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다. 설문조사는 캠퍼스에서 대면조사를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대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고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설문을 진행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의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환경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설문자에게 연구내용 및 설문 실시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총 59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일렬로 응답, 무분별하게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39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5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32명(59.4%), 여자가 227명(40.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학년에 따른 분포는 2학년 181명(32.4%), 1학년 176명(31.5%), 3학년 104명(18.6%), 4학년 98명(17.5%)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이공계 291명(52.1%), 인문·사회계 183명(32.7%), 예체능계 57명(10.2%), 의료생명계 15명(2.7%), 기타 13명(2.3%)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별	남자	332	59.4
	여자	227	40.6
학년	1학년	176	31.5
	2학년	181	32.4
	3학년	104	18.6
	4학년	98	17.5
전공계열	인문·사회	183	32.7
	이공	291	52.1
	예체능	57	10.2
	의료생명	15	2.7
	기타	13	2.3
학업성적	4.0이상	126	22.5
	3.5이상-4.0미만	239	42.8
	3.0이상-3.5미만	127	22.7
	3.0미만	67	12.0
가정의 경제수준	상	55	9.8
	중	413	73.9
	하	91	16.3
전 체		100	

## 2. 측정도구

### 2.1 공감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0]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척도와 Mehrabian과 Epstein[15]의 정서적 공감 척도(Emotional Empathy Scale)를 신경일[22]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은 인지적 공감의 범주에 속하는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감의 범주에 속하는 정서적 공명, 공감적 관심이다. 이중 관점수용은 타인의 입장 및 강점, 생각에 대한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정서적 공명은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감적 관심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반응으로 정의된다[10]. 총 33문항이고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경일[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4로,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 2.2 행복감 척도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2]의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복 경험을 이루는 세 가지 요인들(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인지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 정서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총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만족도에 대한 문항(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과 긍정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문항(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7점: 항상 느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 행복 척도 점수의 계산은 만족도 점수와 긍정 정서 점수를 더하여 부정정서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39점 최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은국과 구재선[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 2.3 감사성향 척도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15]이 개발하고,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17]이 보완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Korea Gratitude Questionnaire-6: K-GQ-6)를 사용하였다. McCullough 등은 강도(감사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와 빈도(감사를 보다 자주 느끼는 것), 범위(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의 측면을 고려하여 39개의 예비문항을 만든 후, 요인분석을 통해 6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척도는 7점 척

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의 총점은 6점에서 42점에 포함되며, 높은 점수는 감사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선중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 2.4 도움행동 척도

도움행동 척도는 Eisenberg[24]의 이타성 자기 보고서 검사를 김수연[24]이 변안한 친사회적 행동검사와, Rushton[25]의 이타성 자기 보고서 검사를 기초로 이숙정[2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김민아[27]가 성인에게 적합한 10문항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1점=아니다, 5점=자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아[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과 모형 평가를 위해서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주요 변인 간의 영향력과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여섯째,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에 대

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때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성향, 도움행동, 공감능력, 행복감의 전체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대학생의 공감능력 평균은 3.47(SD=0.39), 감사성향의 평균은 4.96(SD=1.01)으로, 도움행동의 평균은 3.29(SD=0.74)로 행복감의 평균은 4.85(SD=1.0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공감능력은 감사성향( $r=.29, p<.01$ ), 도움행동( $r=.33, p<.01$ ), 행복감( $r=.21, p<.01$ )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행복감은 매개변인인 감사성향( $r=.42, p<.01$ ), 도움행동( $r=.28, p<.01$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감사성향과 도움행동끼리도 유의미한 정적상관( $r=.26, p<.01$ )을 보였다.

표 2.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공감 능력	감사 성향	도움 행동	행복감
1. 공감능력	1			
2. 감사성향	.29**	1		
3. 도움행동	.33**	.26**	1	
4. 행복감	.21**	.42**	.28**	1
평균	3.47	4.96	3.29	4.85
표준편차	.39	1.01	.74	1.02
왜도	.40	-.03	-.15	-.01
첨도	.14	-.29	-.20	-.04

\* $p<.05$ , \*\* $p<.01$

## 2.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 1.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을 매개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도움행동을 매개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 도움행동을 거쳐 행복감으로 가는 이중매개하는 경로를 제시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chi^2$	df	p	TLI	CFI	RMSEA (90%신뢰도 구간)
측정 모형	141.300	29	.000	.89	.93	.083 (.070~.097)

### 1.2 구조모형 경로 검증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은 비표준화계수(B)와 t값(C.R)을 통하여 매개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검증 결과

경로	B	$\beta$	S.E	t	p
공감능력 → 감사성향	1.350	.650	.158	8.553**	.000
공감능력 → 도움행동	.923	.651	.168	5.487**	.000
공감능력 → 행복감	-.136	-.068	.236	-.579	.079
감사성향 → 도움행동	-.006	-.009	.064	-.089	.092
감사성향 → 행복감	.565	.585	.104	5.445**	.000
도움행동 → 행복감	.284	.201	.110	2.591*	.021

\* $p < .05$ , \*\* $p < .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공감능력에서 감사성향( $\beta=.650, p<.01$ )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공감능력에서 도움행동( $\beta=.651, p<.01$ )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감사성향에서 행

복감( $\beta=.585, p<.01$ )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도움행동에서 행복감( $\beta=.201, p<.05$ )으로 가는 경로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공감능력에서 행복감( $\beta=-.068, p>.08$ )으로 가는 경로와 감사성향에서 도움행동( $\beta=-.009, p>.09$ )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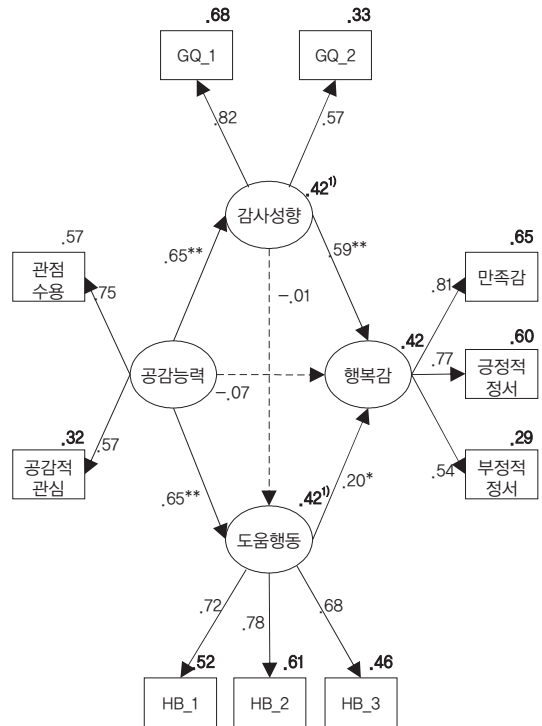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 < .05$ , \* $p < .01$ , \*\* $p < .001$

### 1.3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사성향, 도움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경로에 따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559명을 대상으로 재표본추출하여 1,000개의 표본 수와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



고,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효과 및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N=559)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공감능력	← 감사성향	.650** (.514~.772)	-	.651** (.511~.778)
	← 도움행동	-.008 (-.278~.177)	-	-.008 (-.278~.177)
공감능력	← 감사성향 → 도움행동	.201* (.040~.380)	-	.201* (.040~.380)
	← 도움행동	.651** (.460~.912)	-.005 (-.204~.107)	.646* (.528~.754)
공감능력	← 감사성향 → 도움행동 → 행복감	-.068 (-.425~.160)	.510** (.326~.857)	.442** (.333~.546)
	← 도움행동 → 행복감	.585** (.423~.828)	-.002 (-.089~.032)	.584** (.426~.794)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1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을 통해 도움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 ( $\beta = -.005$ ,  $CI = -.204 \sim .107$ ,  $p > .05$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성향에서 도움행동을 통해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효과 ( $\beta = -.002$ ,  $CI = -.089 \sim .032$ ,  $p > .05$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을 통해 행복감에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 ( $\beta = .510$ ,  $CI = .326 \sim .857$ ,  $p < .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 ( $\beta = -.068$ ,  $CI = -.425 \sim .160$ ,  $p > .05$ )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행복감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구조모형의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대학생의 공

감능력이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AMOS에서 다중매개모델인 경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매개변인들 전체에 대한 매개효과만 검증하게 되고 매개변인들 각각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인을 생성해서 559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재표본추출하여 10,000개의 표본 수와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의 경우 비표준화계수는 제대로 계산되지만, 표준화계수는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다[30].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검증한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공감능력	← 감사성향	행복감	.76**	.23	.45	1.35
	← 도움행동	행복감	.26*	.16	.06	.70
공감능력	← 감사성향 → 공감능력	행복감	-.01	.05	-.14	.04
	← 도움행동	행복감				

주. 숫자는 비표준화계수  
p<.05, \*\*p<.01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는 ( $B = .76$ ,  $CI = .45 \sim 1.35$ ,  $p < .01$ )와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도움행동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B = .26$ ,  $CI = .06 \sim .70$ ,  $p < .05$ )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각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 ( $B = -.01$ ,  $CI = -.14 \sim .04$ ,  $p > .05$ )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이중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감능력이 각각의 변인인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을 통해 행복감에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조적인 과정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공감능력과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영호[11]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구축할 수 있어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감 인식수준이 향상된다고 나타난 결과와 송선주[4]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서 공감능력을 발휘할수록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대학생에 있어서도 공감능력이 높아지면 행복감을 느끼는 인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감능력, 감사성향, 도움행동, 행복감 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감능력이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각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인 매개효과가 더욱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예측 변인인 공감능력이 아니라 매개변인인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에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성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사성향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다고 하여 행복감이 높은 것은 아니며, 감사성향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높은 아동이 긍정적인 기분이나 만족감,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서민지[29]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편,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움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도움행동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yan[30]은 도움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도움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타인을 도우려는 동기를 갖고 실제 도움행동을 하여 자신이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로 느껴 자신감이 향상되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7]. 이처럼 도움행동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공감해 주거나 협동하는 것으로 개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중매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1], 감사성향의 정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는 제 삼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가진다고 하였다[31].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감사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나 감사성향이 도움행동을 통해 행복감으로 가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리와 강명주[32]의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에 의해 도움행동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 혹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보편적인 호혜성의 동기가 없다면 도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대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자신의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성인기에 들어서는 대학생들은 정서적인 공감만으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감사성향과 도움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본 연구의 공감능력, 행복감에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때 도움행동보다는 감사성향이 행복감을 더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감에 대하여 탐색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완전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공감능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도움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에 느끼는 행복감은 정서적 차원인 공감능력만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감사성향과 도움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 앞으로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접질문, 참여관찰 등의 질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감능력과 행복감과의 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둘째, 감사성향 프로그램 추구하고 도움행동 추구를 했을 경우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행복감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문원희, 정길수, 김미자, “대학생의 정신건강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대처방식,” 보건교육진흥진흥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03-114, 2012.
- [2] 지속가능 바람, “대학생 가치조사,”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 2016.8.12
- [3] 김은임, *대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공감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4] 송선주, *성격강점, 사회적 지지 및 공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5] M. E. P.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Laws of Life Symposia Series*, Vol.2, pp.415-430, 2002.
- [6] 이회경, *정서적 유대관계로서의 대상에 대한 정감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 박진성,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2권, 제1호, pp.97-118, 2015.
- [8] 박영신, 김희철,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4호, pp.801-836, 2008.
- [9] 양영문,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공감능력 및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0] M. H. Davis, “공감능력의 개인적 차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18법,” *JSAS 심리학에 정선된 자료의 목록*, 제10권, p.85, 1980.
- [11] 소영호, “생활체육 참가자의 공감능력이 회복탄력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제1호, pp.167-180, 2014.
- [12] 김여흠, 이윤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587-1604, 2013.
- [13] 정경아, 김봉환,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89-104, 2010.
- [14] K. M. Sheldon and L. King,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Vol.56, pp.216-217, 2001.
- [15] M. E. McCullough, R. A. Emmons, and J. Tsang,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82, No.1, pp.112-127, 2002.
- [16] 김미령, “도움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및 친사회적 반응: 도움 제공자의 보답 기대에 따른 차

이,”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65-87, 2014.

[17] 권선중, 김교현, 이홍성,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77-190, 2006.

[18] 신현숙, “도움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및 친사회적 반응: 도움 제공자의 보답 기대에 따른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65-87, 2008.

[19] 오진아,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0] 유경연, *중학생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1] 신경일,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2] 서은국, 구재선,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1호, pp.95-113, 2011.

[23] N. Eisenberg and P. H. Mussen, *The roo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4] 김수연, 전재숙,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 과 아동교육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제12권, 1999.

[25] J. P. Rushton, R. D. Chrisjohn, and G. C. Fekkin, “The altruistic personality and the self-report altruism scale,” *Person Individual Difference*, No.2, pp.293-302, 1981.

[26] 이숙정,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1호, pp.75-87, 2001.

[27] 김민아, *도덕적 정서가 도움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도움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8] 배병렬,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청람, 2014.

[29] 서민지, *학령 후기 아동의 감사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0] R. M. Ryan and E. L. Deci,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2, pp.141-166, 2001.

[31] 한지영, 김정민, 김재정,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 공감, 죄책감 및 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0권, 제6호, pp.368-380, 2012.

[32] 조상리, 강명주, “조업원의 도움이 고객의 감정적 반응 및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제20권, 제4호, pp.95-115, 2012.

저자 소개

김은주(Eun-Ju Kim)

정회원



- 2017년 :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서울가톨릭 상담심리학회 가톨릭상담센터 상담사

<관심분야> : 청소년 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정은정(Eun-Jung Chung)

정회원



- 1991년 :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심리학(석사)
- 2004년 : 이화여대 대학원 심리학(문학 박사)
- 현재 :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정신병리, 불안장애, 학습 및 진로 상담